

대림 제3주일(자선 주일)

2024. 12. 15 (다해) 제2344호

함께 걸어나는
하느님 백성



복음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루카 3,16

사유

이춘만

1988

청동 Bronze

49,0×10,0×25,0cm

광주가톨릭박물관

입 당 송 기뻐하여라. 거듭 말하니,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여라.
주님이 가까이 오셨다.

제 1 독 서 스바 3,14-18

제 2 독 서 필리 4,4-7

화 답 송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기뻐하며 외쳐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너희 가운데 계신 분은 위대하시다

복음환호송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복 음 루카 3,10-18

영성체송 마음이 불안한 이들에게 말하여라. 힘을 내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우리 하느님이 오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리라.





공간을 열어 더 큰 것을? 보다 더 가난한 이들에게 공간을 지으십시오!

2024년 자선 주일을 맞아, ‘어떤 부유한 사람의 비유’(루카 12,16-21)에 대한 성 대 바실리우스의 강해「내 공간을 열어 내리라」의 한 대목(6항 참조)을 소개합니다.

「“공간들을 열어 내고 더 큰 것을 지어야지.” 그래서 더 큰 공간이 또 차면, 그때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공간을 갖고 싶다면, 가난한 이들의 배 속에 공간을 지으십시오. 천국에 그대를 위하여 보물을 쌓아 두십시오.»

「그대는 “두 번째 공간을 채우고 나면, 가난한 이들에게 나눠 주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이 약속은 미래에 주겠다는 맹세라기보다 오히려 현재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주지 못합니까? 그대가 오래 살 것이라고 그토록 확신하는 것이지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대는 모릅니다.»

「그대는 혹시나 누가 그대의 움켜쥔 손에서 작은 동전들을 훔쳐 가지나 않을까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가진 것이 없어 줄 수가 없어요. 나 자신이 가난해요.” 그대는 참으로 가난하고, 선함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습니다. 그대는 사랑을 행하는 데, 친절을 베푸는 데, 하느님을 믿는 데, 영원한 희망을 지니는 데 가난합니다. 내일이면 썩어 없어질 것을 오늘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그렇지 않은 것이야말로 참으로 최악의 탐욕입니다.»

급변하는 오늘날 우리 시대는 ‘위험사회’로 내

몰리고 있습니다. 기후환경의 변화, 세계 정치·경제·사회의 양극화 현상,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 등에 따라 예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여러 위기적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에 여러 형태로 인간소외 현상은 더 심해지고, 공동체성은 약화되고, 사회적 약자는 그만큼 어려움과 고통이 가중될 것입니다. 사실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정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나 지금이나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믿음의 핵심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의 섬김 활동의 첫 출발은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성업이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과 자선은 나 자신과 세상 구원을 위한 고귀한 업적입니다. 일상에서의 기부 생활과 더불어 생의 남은 재화-유산의 일부나마-를 기부하는 것까지 모든 자선은 나와 세상 구원을 위한 성업이 됨을 교회는 이야기합니다.

성 대 바실리우스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문밖에 모여 있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그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기뻐해야 마땅합니다.”

이봉문 요한보스코 신부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장



코로나와 하느님 백성의 대화 (1)



하느님의 은총은 때로는 시련으로부터 온다. 지난 2019년부터 3년여 동안 전 세계를 강타했던 코로나 질병은 우리 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나 동시에 그동안 우리가 관행적으로만 지켜왔던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광주대교구가 2019년부터 진행했던 ‘3개년 특별 전교의 해’는 같은 해 10월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셨던 ‘특별 전교의 달’을 우리 교구가 3년의 기간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러나 특별 전교의 해를 선포하고 난 뒤 불과 2-3달 만에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본당에서 미사 거행은 중단되었고, 그 외에 본당의 모든 사목활동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 구성원들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가장 많이 보여 주었다.

그러나 아울러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개별 본당에서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함께 공유하면서 기획위원회의 방향을 잡아나가기 시작하였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날 수박을 가득 사서 차에 싣고 어르신들을 방문한 본당, 저조한 미사 참여율을 걱정하며 찾아가는 사목을 한 본당, 노인들이 식사를 못 하실까 봐 더 철두철미하게 음식 나



코로나 시기 어려운 이들을 위해 나눔 부스를 설치한 염주동 본당

눔을 한 본당, 나눔 부스를 설치하여 가난한 이들이 필요한 것들을 가져다 사용할 수 있도록 장소를 마련한 본당 등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위로와 귀감이 되었다.

‘교회의 쇄신과 코로나

극복’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지닌 특별 전교의 해 기획위원회는 앞으로의 활동 방향을 크게 다섯 가지로 잡았다. 1) 교구민 모두가 복음의 기쁨을 전하는 자비의 선교사가 되도록 한다. 2) 시대의 징표 안에서 복음화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열정으로 새로운 표현과 방법을 찾는다. 3)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가 되도록 한다. 4) 교회의 공동합의적인¹⁾ 특성을 살려내어 모두가 함께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5) 생태적 회심을 위한 교회를 지향한다.

특별 전교의 해는 이처럼 코로나라는 시대적 어려움과 함께 시작되었지만, 오히려 이를 계기로 교회 공동체를 더 근본적으로 성찰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리고 기획위원회가 제시한 다섯 가지 활동 방향은 후에 ‘하느님 백성의 대화’를 태동시켰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되새겨야 할 근본 자세라고 할 것이다.

이정주 아우구스티노 신부
사목국장

1) ‘공동합의성’이라는 표현은 교회론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주교회의 차원에서 사용을 지양(止揚)하고 ‘시노달리타스’라는 라틴어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제41회 자선 주일 담화(요약)

“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못 가진 이에게 나누어 주어라.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루카 3,11)

오늘은 1984년부터 시작하여 40년째 되는 ‘자선 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은 특히, 사순절 동안 세 가지를 훈련합니다. 기도와 자선과 단식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자선은 이웃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리고 단식은 나 자신과의 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영적 훈련입니다.

우리에게는 함께하고 싶은 이웃도 있고, 얼굴을 마주하는 것조차 싫은 이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잘난 체하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또한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기심에 사로잡혀 진리를 거스르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는 진노와 격분이 쏟아집니다”(로마 2,8).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의 길을, 사악한 입을 미워한다”(잠언 8,13).

반대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은 겸손하고, 자기 것을 기꺼이 베푸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베푸는 이들을 사랑하십니다.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곳으로 갈 것이다”(마태 25,40,46). 우리는 모두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웃들이 나를 싫어한다면, 아마도 내가 거만하거나 나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웃들이 나를 좋아한다면, 내 것을 기꺼이 그들과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나눌 수 있는 것은 많습니다. 나의 재물 뿐만 아니라 나의 재능, 나의 힘, 더 나아가 나의 마음입니다. 고통받는 이웃과 함께 아파하고, 큰 시련을 겪는 이웃과 함께 슬퍼하고, 경사를 맞이한 이웃과 함께 기뻐하는 것도 자선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께서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는 잘나고 똑똑한 사람들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고통받



는 사람들도 함께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의 행복은 제물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고 함께 나누는 이웃들과의 관계에 있음을 알아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마태 9,13).

희생은 타인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 놓는 일입니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일입니다. 희생은 자선의 절정입니다. 예수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13).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저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저들은 모두 풍족한 데에서 얼마씩을 예물로 넣었지만, 저 과부는 궁핍한 가운데에서 가지고 있던 생활비를 다 넣었기 때문이다”(루카 21,3-4). 자신에게 소중하고 필요한 것마저 내어 주는 자선 또한 희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선은 평안과 기쁨을 가져옵니다. 베품은 이기적인 이 세상을 구원하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 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마태 7,12).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무엇보다 우리의 절대적 희망입니다. 코로나도, 전쟁도, 자연재해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이 희망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아직도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대적 희망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에게서 비롯되는 작은 희망들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사랑하며 자신의 것을 나눕시다. 그렇게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시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조규만 주교

QR코드스캔 (담화전문보기)

교회 문헌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4.





사랑을 담으면 특별해집니다

12월이 되면 저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올 한 해 하느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는 잣대는 무엇일까요?

되풀이되는 일상에 사랑을 담을 때 세상은 더욱 살만한 곳이 되고, 또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받을 뿐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작지만, 따뜻한 책을 소개합니다.

사랑은 큰일이 아니라 작은 일의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해야 할 일을 마음을 다해 행하는 것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은 앞만 보고 걷느라 마음의 여유를 잊어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작은 일에 큰 사랑을 담고 사소한 일에 정성을 담을 때 마음이 부유해지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말하는 저자는 사실 아홉 살 때 집 안에서 아버지가 총탄에 맞아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정신적 충격과 아픔을 겪었지만,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수도자이자 교육자의 삶을 살아온 저자는 온유함과 인내, 이해와 사랑, 실천하는 가르침으로 젊은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순간순간에 마음을 담아 행하기, 스스로 행복의 꽃을 피워내기 같은 주제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것을 삶의 가치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반성을 하게

되더라고요.

작은 일에 사랑을 담았는지,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평화를 전했는지, 단 한 번뿐인 이 순간 만나는 이에게 최선을 다했는지 등 찰나의 소중함을 일깨

워주는 저자의 글은 지난 삶을 가늠해 보고 다가오는 시간을 보람 있게 지내는 지혜로 다가옵니다.

시련을 견디고 용서를 통해 자유를 찾은 저자가 말하는 기도의 힘은 상처받고 어둠에 갇힌 이들에게 빛이 들어오는 방향을 알려줍니다.

자신을 자책하는 마음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이해와 용서로 감싸고 오늘을 시작하도록 초대하는 이 책은, 나 자신에게 그리고 그동안 소식을 전하지 못한 그리운 이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선물이 될 것입니다.



김인순 가브리엘라 수녀
성바오로딸수도회

교구장 동정



- 12월 15일 소공동체 축진팀 양성 수료식(교구청)
12월 17일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등학교 졸업미사
12월 18일 부제선발예식(교구청)
광주가톨릭합창단 송년미사(교구청)
12월 19일 말씀의 선교수도회 집 축복미사
12월 20일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노숙인 돌봄사업 성탄행사(호남동)
12월 21일 장애인복지협의회 한마음 송년미사(교구청)

교구 선교(볼리비아) 후원 안내



천주교 광주대교구 선교 후원 계좌
광주은행 170-127-003379
(재)광주구천주교(선교)
문의 : 062) 380-2821

감사의 말씀

지난 11월 30일 세상을 떠난 저희 모친 김
삼덕 가타리나를 위해 기도와 위로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남재희 신부 가족 일동

1. 교구청 직원채용 공고(1명)

자격 : 세례 3년 이상,
영어작문 · 회화 가능자 우대
조건 : 계약직(정규직 전환 가능)
접수 : 12.16(월) 16:00까지

2. 광주가톨릭박물관 직원채용 공고(1명)

자격 : 세례 3년 이상,
박물관 기획 · 운영 경력자 우대
조건 : 비상근 계약직
접수 : 12.23(월) 16:00까지

서류 : 홈페이지(www.gjcatholic.or.kr) → 자료
→ 문서자료 → '입사'검색
(본당신부 추천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동의서,
기타 증명서류(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 : 이메일(gjsamu@hanmail.net) 혹은 우편접수
우편 보내는 곳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980
천주교 광주대교구청 사무처 인사담당
문의 : 062) 380-2801

cpbc 광주가톨릭평화방송

www.kjpb.com FM 99.9 MHz FM 99.5 MHz

YouTube 페이스북 광주가톨릭평화방송 OnAir

오늘의 강론[월-토 (본방송) 06:50-07:00 / (재방송) 16:50-17:00, 23:50-24:00]

12.16(월)-18(수) 유창훈 신부(흑산 본당) / 12.19(목)-21(토) 박기석 신부(학운동 본당)

'향기로운 오후, 주님과 함께(종교 프로그램)' 월요일 코너 - '신부들의 수다' [12.16(월) 14:05-14:55]



교구 신부들의 유쾌한 수다 시간입니다. 12.16(월)에는 출신 본당 신부
들의 여섯 번째 이야기로, 영주동 본당 출신 김안식 신부(2016년 서품),
김용빈 신부(2017년 서품), 김승건 신부(2024년 서품)가 출연해 영주
동에서 보낸 학창시절 에피소드와 함께 신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나
눕니다. 이 시간은 어플 'cpbc뽕'과 유튜브('광주가톨릭평화방송' 검
색)를 통해 화면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방송국 후원회 '지붕위에서 외쳐라' '기부금영수증' 발급안내

2024년도 방송국 후원회 '지붕위에서 외쳐라' 연간 후원금은 '본당 교무금' 및 '교구기관 후원회 후
원금'과 합산되어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기부금 내역'에서 조회 및 출력(2025년 1월 15일 이후)
가능합니다. 발급기관명 : (재)광주구천주교회유지재단(주민등록번호 전체 숫자 등록 필수) / 문의
: 062) 231-7701, 7709 연말 문의 전화가 많아 문자전용번호(010-4828-7745로 문자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바오로 여행사(문의 : 062) 381-9004 / 홈페이지 : www.paulustour.com)

성모님 발현지(루르드, 파티마, 바르셀로나(12일) 3.11(화)-22(토))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www.gclei.kr 062) 380-2210~4

갤러리 380-2213 | 책다하기사당도서관 380-2218

2024학년도 겨울특강 안내

시니어 건강운동 놀이지도

강사 : 박찬원

· 25.1.4-2.22, 7주간 / 매주 토 10:00-12:00 / 수강료 11만 원

한국화(수목화)

강사 : 송현섭 신부

· 25.1.6-2.24, 8주간 / 매주 월 10:00-12:00 / 수강료 8만 원

교회미술(수채화)

강사 : 송현섭 신부

· 25.1.7-2.25, 7주간 / 매주 화 10:00-12:00 / 수강료 7만 원

오카리나

강사 : 임서영

· 초급) 25.1.8-2.26, 7주간 / 매주 수 19:00-21:00 / 수강료 7만 원

· 중급) 25.1.2-2.20, 7주간 / 매주 목 19:00-21:00 / 수강료 10만 원

※ 수강신청 방법 : 전화, 홈페이지 www.gclei.kr

※ 수강료 결제방법 : 계좌이체, 신용카드, 홈페이지 온라인결제
- 입금계좌 : 광주)170-107-051747 (재)광주구천주교회(교육원)

※ 수강생 주차장 이용은 차량번호 등록 후 가능

2024 통기타 수강생 발표회

· 일시 : 12.18(수) 20:00 · 장소 : 교구청 대건문화관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등록 관련
(25.1.15 이후 조회 가능)

교무금, 각종헌금, 주일헌금(봉헌자가 확인된 경
우), 후원금(교구 후원단체* 포함)에 대해서 합산
하여 '409-82-03705 재단법인 광주구천주교
회유지재단' 기부금으로 간소화 자료등록 합니
다. 문의는 소속 본당 또는 각 후원단체로 하시
면 됩니다.

* 교구 후원단체 : 군중후원회, 광주가톨릭박물관,
아버지학교, 가톨릭목포성지, 광주가톨릭평화방송,
가톨릭사회복지회, 사회사목국, 성소국, 피아골피정
집, 소록도아기사승성당교육관



사회복지법인 Caritas GWANGJU

가톨릭광주사회복지회

'빵 다섯 물고기 돌' 가족미사

나눔과 기도로 많은 도움을 주시는
후원자, 자원봉사자 및 그 가족들을 위한
감사 미사를 매월 봉헌합니다.

(※ 미사 참례를 원하시는 분은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 12.21(토) 10:00(매월 세번째 토요일 10:00)

광주권 : 임동 성당(광주 북구 태봉로 23, 2층 소성당)

목포권 : 목포가톨릭문화회관 성당

(전남 목포시 영산로 325, 2층)

순천권 : 순천카리타스 성당

(전남 순천시 서면 청소길 52)

<후원 계좌>

농협 605-01-353182

광주은행 019-107-310370

문의 : 062) 510-2880

(※기부금 영수증은 입금자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2024년 장애인 한마음 송년미사

일시 : 12.21(토) 15:00 / 장소 : 교구청 성당

주례 : 옥현진 시몬 대주교

문의 : 010-7492-0124

기관·단체

성령기도회

일시 : 매주 목 19:00-22:00
 12.26 강사 : 신상옥 안드레아 찬양사도
 장소 : 교구청 성당
 문의 : 성령쇄신봉사회 062) 382-6002

청주 초정성령회관 송년대피정(2박 3일)

일시 : 12.27(금) 20:00-29(주일) 14:00
 회비 : 2만 원(청소년 무료)
 강사 : 김완식 요셉, 양창우 신부, 박효철 신부
 셔틀 : 조치원 역 18:20
 청주버스터미널 다이소 맞은편 18:40
 장소 : 초정성령회관
 문의 : 043) 213-9103, 010-5482-6744

국악성가 장구반주 수강생 모집

일시 : 2.16(주일) 매월 셋째 주 주일
 중, 초급 14:00-20:00
 장소 : 일곡동 명상의 집
 강사 : 강수근 신부, 송민영 선생
 수강료 : 연간 50만 원
 계좌 : 국민은행 295401-01-187345
 송민영(국악성가)
 문의 : 010-2279-0255

광주가톨릭대학교 주방직원 채용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신부 추천서
 마감 : 12.27(금)
 제출 : 전남 나주시 남평읍 중남길 12-25
 광주가톨릭대학교 사무처
 문의 : 061) 339-2230

장성프란치스코의집 조리원 채용

모집 : 채용시까지(홈페이지 참조)
 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자격증 불필요)
 문의 : 061) 390-9600

2025년 노비파스음악중·고등학교
신입생 모집(학력인정 대안학교)

대상 : 고등학교 신입생, 중학교 3학년 전입생
 혜택 : 전액 무상교육(수업료, 기숙사비 전액 무료)
 음악 중점 교육과정 운영
 문의 : 학교 홈페이지 novitas-s.goegp.kr 참조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쉽고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 중)
 한라산 포함 : 1.11(토)-13(월)
 1.16(목)-18(토), 1.20(월)-22(수)
 1.24(금)-26(주일), 2.7(금)-9(주일)
 2.15(토)-17(월)(제주T/S)
 대상 :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문의 : 02) 773-1455, 064) 796-4182

'라 크르와' 해외 성지순례

일자 : 7.25(금)-30(수) / 장소 : 몽골
 문의 : 성모승천수도회 010-2378-9104

선교·수도회

살레시오신안동수도원후원 가족피정

일시 : 12.16(월) 10:30
 장소 : 살레시오 신안동수도원(전남대 정문)
 대상 : 모든 신자
 문의 : 062) 512-0332

재속맨발가르멜회 지원자 모임

일시 : 5.11(주일)
 장소 : 광주가르멜수도원
 문의 : 010-6793-7999

예수고난회-침묵기도수련

일시 : 매 달 마지막 수요일
 1.22(수) 10:00-17:00
 내용 : 침묵 안에서 몸과 마음과 말씀과
 함께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운다
 장소 : 예수고난회 명상의 집
 문의 : 062) 571-5004, 8004

스승예수제자수녀회 젊은이 모임

일시 : 전화 상담 후 결정
 장소 : 광주시 서구 화정동 광주분원
 문의 : 010-6300-9208

살레시오회 성소 모임

일시 : 매월 세 번째 토-주일
 장소 : 광주 신안동 수도원
 문의 : 062) 512-0332

미리내천주성삼수도회 성소자 모집

일시 : 상시, 전화상담 후 결정
 장소 : 미리내 수도회 본원
 문의 : 성소부) 이 안젤로 신부 010-5195-3217
 총장) 이 스테파노 신부 010-9744-2974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 운동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2025년 1월 8일(수) 염주동 성당에서 아래 후보자들이 사제품과 부제품에 서품될 예정입니다. 만일 후보자를 서품하기에 장애가 되는 결함을 알면 누구든지 주님의 영광과 거룩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반드시 본당신부나 주교에게 밝히 알릴 것이며, 또한 우리 모든 신자들은 후보자들을 위하여 주님께 열심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광주대교구장 옥현진 시몬 대주교

서품공시

≫ 사제품 후보자(4명)

박찬규 미카엘	윤남동
강민균 안드레아	원 동
이맑음 마오로	해 남
박휘영 사무엘	산정동

≫ 부제품 후보자(3명)

김요셉 요셉	월곡동
김해솔 시몬	봉선동
안지원 프란치스코	조례동

※ 공시 관련 문의 : 성소국장 신부 062) 380-2287